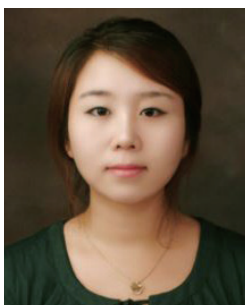




충남 경제비전에 거는 기대



오 정 연
대전일보 기자

유독 늦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겨울이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내주는 3월이 됐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대전에서 충남도 내포신포시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 지도 어느덧 3개월을 넘기며 내포신도시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면 폭설과 한파로 온통 눈 발이었던 내포 신도시와 주변 지역 일원도 보다 생동감 넘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감에 부풀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신참 이주민으로서 가장 먼저 품었던 궁금함은 자동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병풍 같은 산자락 아래 보이는 소박한 농촌의 풍경과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도시, 지난 겨울 한파에 뱃길이 끊겨 고생이 많았던 바다와 섬 지역까지 그 거리와 정치만큼이나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충남 전 지역을 어떻게 한 가지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책이 있기는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충남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충남경제비전 2030'을 유심히 보게 됐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차세대 성장산업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깨끗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만 보거나 '충남경제비전 2030'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골고루 함께 웃는 경제'라는 말에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연초에 열린 지역정책포럼에서 이에 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생겼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 전략이나 성장동력전략을 포함한 경제산업비전의 핵심에 자연생태가치의 향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일 법한 경제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연생태가치 향상이나 환경정비 같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언뜻 안 어울리는 그림 같기도 하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앞서가는 느낌과 괴리가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자동차 산업과 함께 몰락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를 보며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밀식형 축사를 짓듯 제조업체, 공장을 유치하면 해당 제조업체의 몰락과 함께 기업의 기반도 무너져 버린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우리 지역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금보다 키워냄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클린 충남운동이나 깨끗한 충남 만들기 같은, 하천 정비부터 시작되는 환경 관련 사업이 결국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만아들을 공부 많이 시켰으면 (만아들이) 동생들도 챙겨야 한다'고 표현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앞장서서 발전가도를 달렸던 산업분야가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농업 등 다른 산업분야와 함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어깨동무'할 수 있게 자꾸 걸쳐줘야 한다'는 것이 '골고루 함께 웃는 경제'의 핵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같은 생각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존 충남도의 6차 산업 전략에 반영되었다면 올 한해 충남도는 이를 넘어 IoT(사물인터넷)을 위시한 IT 분야 등 신산업 분야까지 시야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에 방문했던 안 지사는 결국 지역 발전의 핵심은 그 비전이 인터넷 시대와 어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다며 충남 지역과 지역상품이 이에 맞춰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했다. 도의 1차, 2차 산업의 중심에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농업과 IT의 접목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는 사례가 하나둘 쏟아지면 농업을 보는 기존의 시선까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유유히 충남을 감고 흐르는 금강 같은 차분하고 여유있는 충청의 정서가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것과의 접목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강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